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9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2월 23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정리해고
철회하겠다더니
결국 말바뀐

갑자기 대화를 요청한 피엘에이 자본

설을 앞두고 피엘에이 자본이 갑자기 지회에 대화를 요청했다. 서울 본사에서 내려온 담당자들은 정리해고를 철회할 의향이 있음을 전하며 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같이 노력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피엘에이가 무리한 정리해고를 강행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기도 했다. 지회는 설 직전 조합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

생산량 극도로 높이겠다는 검은 속내 드러나

설날을 하루 앞둔 17일 저녁까지 교섭은 계속됐다. 그러나 피엘에이 자본은 끝까지 정리해고 철회의 조건으로 생산량을 높이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회는 정리해고를 당한 조합원들의 고용을 위해 생산량을 일부 양보할 수 있다고 했으나 사측은 조합원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높이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정리해고 상태인 18명의 조합원들이 복귀해도 현장 인원은 48명밖에 안된다. 애초에 사측이 계획했던 현장 최소인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사측은 정리해고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복직시켜준다는 명분으로 생산량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올릴 의도였다는 것이다.

사측이 진정으로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이라면 2개월 넘게 정리해고의 고통 속에 힘들었던 조합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먼저 하고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생산량에 대해서는 복직 후 논의하자고 요청해도 모자랄 판국에 조건으로 생산량 증가를 고집하는 것은 사측이 정말 노사관계 정상화와 공장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진정성있게 교섭에 나서라

피엘에이 자본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정리해고 철회를 논의하자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교섭에 나선 자세를 보면 노조와 정말 성실한 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없었다. 끝까지 생산량만 높이기 위해 정리해고를 무기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제대로 된 교섭은 불가능하다. 진정으로 공장 정상화를 원한다면, 조건없이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해고자 농락한 피엘에이 자본, 용서는 없다!

민주노총, 정기대대서 만장일치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이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박근혜 재벌 배불리기에 맞서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4월 선제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성사시키자고 만장일치로 힘차게 결의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4월 선제총파업에 민주노총 전 조직이 힘차게 나서자고 역설했다. 위원장은 “강한 민주노총, 조직된 민주노총, 스스로 강하게 싸워 민주노총이 승리하는 총파업을 만들자”고 말하고 “동지들을 믿고, 80만 조합원을 믿고, 900만 장그래를 믿고, 2,000만 노동자, 5,000만 민중을 믿고 승리하는 총파업 투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2015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의 노동자죽이기 정책 분쇄투쟁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간접고용-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투쟁 등 3대 현안 투쟁 조직화를 통해 재벌 배불리기 대 노동자-서민 살리기 구도를 중심으로 주요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4월 선제적인 상반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 날 콜택지회는 모범조직상을, 청주시 노인전문병원분회 권옥자 분회장은 모범조합원상을 수상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실종자를 가족 품에.”

1월 26일 안산을 출발해 450km를 걸어 온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 2월 14일 진도 팽목항에 도착했다. 이날 피해 가족들, 단원고 생존학생 27명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팽목항까지 걷는 마지막 행진을 벌였다. 17시20분 팽목항에 도착한 도보행진단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팽목항에서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전국에서 모인 4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실종자 수색,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대회에 앞서 세월호 침몰 현장에 다녀왔다. 단원고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 이금희씨는 “침몰 현장에 갔다. 딸이 50미터 아래 바다에 있는데 두고 왔다.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서 빨리 내 딸을 꺼내줘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절규했다. 이금희씨는 “4월16일 전원구조 소식을 듣고 옷을 갈아입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진도에 왔다. 305일이 지나도록 딸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열여덟 꽃다운 나이의 딸은 분향소에 영정사진조차 올리지 못한다”며 “은화 오빠는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못한다. 살아 돌아온 은화 친구들도 여전히 힘들 것이다. 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배를 인양하고 실종자들을 모두 찾는 것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금희씨는 “내 딸을 다시 볼 수 없다. 평생 그리워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말하지 말아달라. 잊지 말아달라. 세월호 인양해서 아직 배 안에 있는 아홉 명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나쁜 도급 없애라!”

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김재기 대의원이 16일 분신 사망했다. 김재기 열사는 16일 21시 8분 경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본관 앞에서 분신했다. 분신 이후 회사 사무직 노동자가 김재기 열사를 발견했다.

지회는 분신 이후 김재기 열사 차량에서 발견한 유서를 발견했다. 열사는 “제가 죽는다해서 노동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금타(금호타이어)만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라고 유서를 남기며 회사에 도급화 철폐를 요구했다. 지회는 차량에서 유서와 함께 ‘도급화 결사 저지를 위한 조합원 서명 결의서’를 발견했다.

금호타이어지회와 회사는 워크아웃 돌입 이후인 2010년 597개 직무를 도급화 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직무의 정규직을 전환 배치하고 그 업무를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내용.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597개 중 521개 업무를 도급화했다. 이에 따라 1천 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금호타이어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 당시 노사 합의는 2014년까지 도급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회는 지난해 12월23일 워크아웃 졸업 이후 도급화 종단을 요구해왔다. 2월 3일 지회는 광주지방법원에 도급화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는 지회 요구를 무시하고 도급화를 계속 진행했다. 김재기 열사가 일하고 있는 스프레이-운반업무도 도급화 전환 대상이었다. 열사가 분신한 16일 도급화 관련 실무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열사는 조합원들과 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도급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호타이어지회,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열사 분신 직후 대책회의를 열고 열사의 뜻에 따라 도급화 철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유족은 광주전남지부와 금호타이어지회, 민주노총 광주본부에게 장례 일체와 교섭 등을 위임했다. 지회는 열사를 광주 만평장례식장에 안치했다. 유족으로 부인과 딸, 아들이 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iswcool@naver.com



<2.10 PLA지회 결의대회>



<2.10 PLA지회 농성물품 후원>



<2.13 금속노조 부위원장 콘티넨탈 방문>



<2.13 금속노조 부위원장 보쉬전장 방문>